

# 29/08/2025 6조 회고록(멋사)

## 8월 29일 회고록

### 오늘의 공통 활동

오늘은 팀별 **자바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각 팀은 주제를 정하고, 속성과 기능을 도출하며 추상화·도식화 과정을 거쳤다. 일부 팀은 실제 코딩까지 시도하며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과정에서 모두가 **설계의 중요성, 협업의 의미, 그리고 개념적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체감하였다.

### 개인별 회고

#### 김도은

8월 29일 회고록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개념적인 부분은 이해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gpt를 쓰지 않고, 순수 구글 서칭과 학습 자료들을 기반으로만 진행하였더니,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회고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려웠던 부분을 나열해보려고한다.

- 1.기능별,객체를 나누는 기준을 모르겠음
- 2.객체를 만든다면 어떤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모르겠음.
- 3.객체,기능의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 4.객체들간, 필드 메서드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음.

이 정도인듯 하다. 내일은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기능을 보충하고, 설계를 추가로 해보며, 자료를 찾아보려한다.

#### 최형규

8월 29일 회고록

오늘 미니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팀으로 짝을 맞춰 시작했는데, 막연함에서 막상 코딩 빼고 설계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니 너무 즐겁게 잘했다.

다만 기능에 대해 조금씩 정의할 필요도 있었고, 하다보니 진짜 1부터 10가지 다 정해야 기능 하나 조금 쓸만해지는거보며,

진짜 컴퓨터는 알잘딱깔센이 안되는 친구였다.

이래서 설계 신나게 해놓구, 아 이건 시간이 좀 더 되면해야지 이런것들이 많았던것 같다.

또한 완전 생초보자 2명에서 아웅다웅하는것도 즐거웠겠지만, 우리 김교수님과 ai도움없이 설계는 같이하고, 구현은 팁 정도 받는식으로

해보고 있는데 참 쉽지 않지만, 배운거, 단단하게 기억해갈 수 있었고, 김교수님도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

덕분에 즐거이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빨리 실력 쌓고 좀 더 즐겁게 개발하고 싶다.

당장에 부캠 끝날때의 실력?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다가 헤린님이 얘기하신 거였는데, 너무 공감했다.

"저 자바 좀 합니다." 까불어도되는 실력 어여 쌓아가자

내일 오프-스터디 준비

## 윤수정

2025/08/28

오늘은 자바 미니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들을 앵간히 구현했다. 회원가입, 정보 확인, 대출·반납 등 기본적인 흐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외 처리나 객체 구조 개선, 다형성 같은 심화 개념을 적용해 확장하는 일이다.

문주님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자였다면 놓쳤을 부분들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협업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번 주말은 설계와 구조를 더 깔끔히 다듬고, 확장성을 고려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프로젝트 설계서도 조금 더 보기 좋고 정돈된 텍스트로 만들고싶다. 만약에 다이어그램까지 그릴수있다면 금상첨화! 작은 완성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한 결과물을 만들겠다. 아자!

## 진솔빈

2025/08/29

오늘은 회고시간에 미니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빠른 팀은 설계를 마치고 코딩까지 했다. 환진님의 로고를 보는 순간 음 제네시스. 음 고급짐. 긴장하게 되었다. 벌써 로고까지 한다고?! 프러스 헤린님의 노트 다이어그램~코드도 좋았다. 도은님과 형규님의 작품은 다이어그램, 로직, 코드까지 굉장했다. 수정님과 문주님 역시 설계가 요점만 딱 명확해서 좋았고, 코드도 이미 좋아서 뭐라 말할 게 없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긴장된다. 내 설계가 괜찮은 코딩 결과물로 나오길 바란다.

그래. 차라리 지금 초창기일때 얼른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중에 실전 프로젝트 가서 리스키한 모험을 안하는게 낫다. 얼른 CS지식을 요번 주말을 이용해서 습득하자. 달리자.

## 남헤린

## 8월 29일 회고록

오늘은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구현을 해보니 내가 가진 개념과 이론의 폭과 깊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걸 크게 느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직접 구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도 짧게만 느껴졌다.

우리 팀은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갈 속성과 기능들을 정리했다. 이후에 대략적인 추상화를 거쳐 도식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식이 부족한 탓에 광범위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건 힘들었다. 그래서 팀원과 상의 끝에 우리가 배운 기능들을 우선 적용해보고,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기능은 따로 정리한 뒤 AI에게 코드 예제를 받아보기로 했다.

덕분에 최근에 배운 `map`, `interface` 같은 개념을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었고, 접근제한자를 통한 `getter`와 `setter` 기능도 함께 구현할 수 있었다. 예제로 나온 코드를 단순히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식화 작업을 다시 하면서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한 줄씩 코드를 해석해 팀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 덕분에 모르던 개념은 새롭게 알게 되었고 헛갈리던 부분도 응용해보면서 훨씬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코드를 해석하고 나니 머릿속으로 도식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윤곽이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예제를 다시 보며 부족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고, 직접 손으로 코드를 작성해보기로 했다. 내일은 완전히 빈 파일에서 오늘 이해한 개념을 토대로 처음부터 구현해보며 실력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AI의 도움을 받아 코드를 작성한 것은 아쉽지만,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기분이었다. 스스로 공부하면서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은 부족했지만, 개념을 배우고 이해하는 또 다른 경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오늘을 통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고, 부트캠프가 끝나는 날에는 어디서든 당당히 "저 자바 좀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